南北, 평양공동선언 합의

文 "비핵화 첫 합의" 金 "핵무기 없는 땅 약속"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추진

文대통령 "남북관계 획기적 전기 마련"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 서명 뒤 기념촬영 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을 실질적인 비핵화 내용이 담긴 최초의 합의라고 평가했으며 김 위원장은 민족의 자주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핵무기 없는 땅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백화원영빈관에서 남북 합의문 서명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이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키로 약속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십 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계각층의 내방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영유히 흐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뒤이어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상응조치에 따라 연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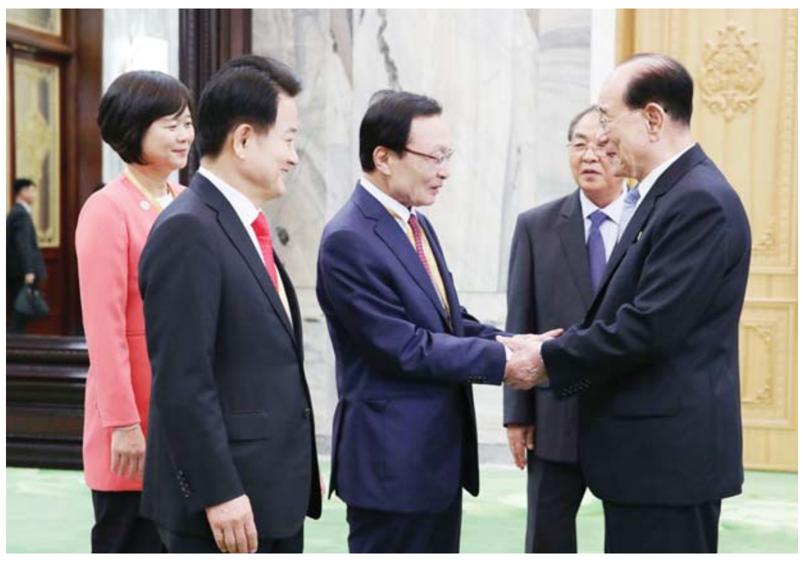
아울러 연내 김 위원장 서울 방문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 방문"이라며 "남북관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뤄져갈 것이며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뉴시스

여야3당 대표 만난 김영남 "대장부 되어 통일위업 성취하자"

이해찬·정동영 향해 "10년 전 그대로" 말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동춘 부의장, 김영남 위원장.

여야 3당 대표를 만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장부가 되어 통일위업을 성취하자"고 말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오전 북측의 국회의사당이라 할 수 있는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부의장, 김용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10년 전과 변한 게 없다는 정동영 대표의 인사에 "(정동영) 선생이나 리해찬 선생 모습도 마찬가지다. 우리, 통일 위업을 성취할 때까지는 영원한 이 모습대로 활기 있게 싸워나가자"며 "북남 문제는 대통령과 함께, 북남 수뇌회담의 남측 대표단 일행으로서 통일 위업 성취에 한마음 한 뜻으로 효과있게 나가자"고 답했다.

이해찬 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 "6·15 정상회담을 하고서 잘 나가다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아주 단절돼서 여러가지로 손실을 많이 봤다"며 "저희가 다시 집권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기회가 다시 왔다. 남북 관계가 아주 영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튼튼하게 만들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도 리해찬 선생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 올라섰다는 희소식이 전파하자 다시금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리라는 신심을 갖게 됐다"고 반응했다.

김 위원장은 "학수고대,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쓰던 의사 표시라고 생각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리해찬 선생과도 통신을 통해 자료를 읽을 때마다 옛 추억에 잠기곤 했고 정동영 선생과도 다른 동무들을 통해 들었는데 백의종군한다고 그러더라. 정의당 대표 여사하고도 만나게 되니 아름다운 마음으로 더 뜨겁게 합심해서 통일 위업 성취에 매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뉴시스

한국·바른미래 "경제인 北요청 논란, 윤영찬의 거짓말"

"文대통령-참모들, 정상회담 아전인수 해석할수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 북측의 경제인 참석요청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참모 인사들은 평양에 가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보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정면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수석은 어제 오후 3시에 (공식 브리핑에서) 경제인 방북은 북측 요청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은 (경제인 면담에서) 자신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계 인사들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북핵 폐기 약속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전해진 바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 식으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해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발언, 김 위원장 육성 없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정상회담 결과 전달은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윤 수석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수석은 '북한에서 (경제인 방북을) 요청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은 '삼성을 둘러싼 모종의 꿍꿍이가 있나', '밝히지 못할 게 있나', '남북이 뭘 숨기고 있나' 의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대북문제에 대해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일갈했다.

뉴시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미 전문가들 "평양공동선언, 실질적인 내용 없어"

트럼프는 긍정적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 끝에 19일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아리랑TV에 출연,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모호하다"고 혹평했다.

베넷은 "김정은 정권은 올해도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화는 쉽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두 정상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지만 비핵화를 진전시킬 실질적인 것은 없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미국 정부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고 핵 시험장과 발사대의 영구적인 해체를 약속했다"며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